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1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기다림(50x50) • 이가온

* 이가온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12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새해는 올 것인가
처음 마음으로	08	나의 참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꽃은 흠에서 핀다	13	못 믿을 세상
일요특강	18	상호존중과 배려의 삶 - ②
옛날의 금잔디	22	낯은 청첩장
아름다운 마무리	26	다가오는 겨울에도 도시가스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8	상느.바.부+5가지 방법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31	꿈같은 한 달
따뜻한 이야기	36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향기나는 우체통	38	자유로운 영혼이 되길 바라며...
알립니다	40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를 모집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262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8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새해는 올 것인가

글·법 정(法 頂)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의 한 자락이 또 지나가버렸다. 마치 옮겨줘있던 모래알이 술술 빠져나가듯이 세월은 그렇게 새어나간다.

돌아볼 것도 없이, 지나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들을 보고 듣고 또한 느끼게 했다. 그리고 여느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은 인과관계와 덧없음의 우주 질서가 확연히 드러난 그런 해이기도 했다.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자질이 어떤지, 그리고 각 정당이 무슨 빛깔을 띠고 있는지를 이제는 한눈에 훤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나온 8년 동안 우리가 어떤 세

상을 살아왔는지, 말쑥한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도 알 수 없었던 허다한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우리들을 어처구니없게 만들었다. 가려졌던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에 앞서 우리들은 분노하고 슬퍼하고 허탈감까지 갖게 되었다.

솔직한 내 심정으로는, 지난 한 해는 마치 무엇에 체한 것 같은, 우리 국민 모두가 8년이나 묵은 악몽과 체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1988년은 ‘현재’는 없이 과거에만 매달려 살아온 것 같다는 말이다.

물론, 현재란 과거의 연장이고 미래 또한 현재의 연장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난 한 해는 현재가 과

거의 더미에 깔려 희미해지고 기를 펴지 못한 그런 나날이었다.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는다면 불쾌했던 일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지나쳐버리려고 한다. 불쾌한 일들에 천착 되면 현재의 삶에까지 그 불쾌감이 묻어오기 때문이다. 일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현재의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치 부여를 할 수 없을 때 나는 선뜻 털고 일어선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일단 지나가버린 일들에 매달리면 현재의 삶이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이중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나는 오늘을 살고 싶다. 현재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고 싶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산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건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일야현자경—夜賢者經〉이란 경전이 대장경 속에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번 지나가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현재의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해라. 그리고 그 경지를 더욱 넓히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전력을 기울이라. 누가 내일에 죽음이 있을지 알 수 있는가…….”

5공 비리와 광주 문제 등은 그동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그 실상과 윤곽이 거의 드러난 셈이다. 기억이 나지 않느니, 나로서는 모르는 일이니 하면서 발뺌들을 하고 있지만, 사건의 배후와 그 책임 소재는 어느 정도 밝혀질 만큼 밝혀졌다. 우리가 개탄해 마지않는 것은 그토록 끔찍하고 엄청난 살육과 부정을 저지르고 나서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책임질 줄 모르는 정

치란 무엇인가.

이제는 정치권과 관계 당국에 의한 그 뒤처리가 주목될 뿐이다. 우리들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은 어물어물 넘기려 하거나 질질 끌지 말고 하루빨리 명쾌하게 매듭지어졌으면 한다. 우리들의 맑은 의식을, 불쾌하고 끔찍한 그런 일들에서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의 삶이 어디 정치뿐인가. 우리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즐겁고 보람 있는 영역은 얼마든지 있다. 무고한 국민들을 어둠던 정치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정치권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세상살이에 힘이 겨운데, 시끄러운 정치로써 무고한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 땅에서 정치다운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정치가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거리이긴 하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으니 정치 문제는 정치를 업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

잘잘못은 우리가 기억해두었다가 다음 선거 때 투표로써 갚아주면 된다.

우리 관용어에 ‘어지간히 해두라’는 말이 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국민의 모질지 못한 덕성이 들어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밝힐 것은 철저히 밝혀야겠지만, 더 밝히지 않아도 뻥한 일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는 것은 ‘씩씩이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섬뜩하고 독기가 서려 있는 생각이다. 철저히 밝힐 줄은 알면서도 어지간히 해두자는 우리 전래의 덕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세상일이란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전부 아니다. 물리적인 또는 사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뿌린 씨앗은 그 자신이 언젠가 스스로 거두게 마련이다. 이것이 이 세상의 섭리이고 우주 질서다. 세상에 완전 범죄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바로 이런 도리에서다.

우리에게도 ‘새해’가 올 것인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달려만 바퀴였

다고 해서 새해일 수 있겠는가. 우리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이 묵은 수렁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새해에 이를 것이다.

악몽은 짧을수록 좋다. 과거를 살살이 캔다고 해서 아픈 상처가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는 없다. 우리가 어제에만 매달린 사이에 오늘의 현장에서는 온갖 도둑들이 설치고 백주에 납치와 인신매매까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또 누구의 책임인가. 나라와 겨레의 처지에서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에게 제발 ‘새해’가 왔으면 좋

겠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이제는 보다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정열을 쏟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의 대열에 끼려면, 우리들의 의식부터 묵은 수렁에서 벗어나 탄탄한 대지를 마음껏 활보할 수 있어야 한다.

묵은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비정한 국제사회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지난 일은 어지간히 해두고 앞을 보고 부지런히 걸어야 한다. 1988

- 텅 빈 창만 중에서

길상사 창건 19주년 기념 법회

12월 11일(일)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창건 19주년 기념 법회를 12월 11일(일) 극락전에서 마련하여, 여러 불자님과 함께 길상사의 창건일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길상사 신도님과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께서서는 수회동참하시어 길상사의 내일을 밝게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으로 예쁜 2017년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나의 참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글 • 덕 일(德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길상사 합창단에서 새롭고 색다른 시도로 음성공양을 올리셨는데, 마치 귤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이 가을을 노래하는 듯한 향기로운 기분에 사로잡히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 또한 색다른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색다른 경험과 색다른 변화를 거듭하다 보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항상 활기에 찬 에너지가 도는 법입니다.

저의 은사이신 법정 스님의 책에서 읽었던 글이 기억납니다. 한겨울 야밤에 눈이 많이 내려서 나뭇가지 위에 소복소복 쌓이는데 나뭇가지가 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

져 내려앉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셨다는 설해목(雪害木)에 관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밤인가 누군가 저의 처소에 창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어느 보살님이 저를 사모하여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는 기대감에 창문을 열어 보았더니 도토리가 창가에 떨어져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도토리가 익어가서 그런지 마치 인민군 떠발총 소리처럼 자주 떨어져 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연의 섭리인 것을……. 도토리나무에게 시끄럽다고 참회시킬 수도 없기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초하루 법문의 주제는 ‘나의 참모습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럼 나의 참모습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아보기 전에 현실이 영화보다 극적인 얘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1970년 6월 7일 오후 5시경 음악콩쿠르대회를 사흘 앞둔 신영애(9세) 양은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 20대 청년 2명에게 유괴를 당합니다. 대구 시내 어느 컴컴한 다락방에 갇힌 신양은 유괴범들로부터 가죽 혁대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범인들의 눈을 피해 탈출한 신양은 심한 매질의 충격으로 집으로 가는 길은 물론 자신의 이름까지도 잊게 됩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신양은 때마침 대구에 불일을 보러 갔던 경주시 황남동 윤순복(40세, 여) 씨에게 발견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윤씨는 신양을 집 없는 아

이로 알고 양딸로 삼으려 했으나, 시부모와 남편의 반대로 사촌오빠 윤영호(54세) 씨에게 신양을 맡깁니다. 그날 이후 신영애양의 이름은 윤향숙이 되었고, 경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이 편입됩니다.

신양은 줄곧 1, 2등을 했고, 전국체전에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등 다재다능한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양은 극장에서 영화 “태백산맥”을 보던 중 6.25 전쟁으로 헤어진 어머니와 딸이 20년 만에 극적 상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친어머니와 여동생의 이름이 떠오르면서 잊고 있던 자신의 과거를 생생하게 되살리게 된 신양은 6년 만에 ‘자신을 되찾았던’ 생각에 영화를 보다 말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후 신양은 키워준 양부모의 곁을 떠나기 어려워 고민에 싸인 나날을 보냈고, 양부모는 어느 날 일기장을 통해 신양의 고민을 알게 됩니다. 1976년 3월 22일, 고심 끝에 신양을 친부모에게 돌려주기로 한 양부모들

은 친부모의 집을 수소문해 대구로 향했습니다. 딸을 되찾은 부모는 처음에는 딸을 찾아보지 못했으나 윤씨의 설명을 듣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친부 신씨는 딸을 길러준 은혜를 잊을 수 없다 하여 양부 윤씨와 의형제를 맺고 형님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1976년 3월 30일자 중앙일보)

“영화 속 한 장면”을 보고 기억을 되찾은 기적 같은 사건,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극적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현재 두 발로 서서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스스로 부처임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영애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고 잊고 살았던 기억을 되찾았듯이 우리도 방일하지 않고 기도와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홀연히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계승이 있습니다.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 커나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 하면
시인행사도(是人行邪道) 라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 니라.

만약에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써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섣된 길을 가는 사람이어서
결코 여래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사구계 가운데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주제처럼 ‘너와 나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으므로, 오늘은 이 사구계를 가지고 경전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참다운 모습을 찾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참모습”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라고 하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상대편을 인정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키가 크고 작고 잘 생기고 못생긴 것으로 나

와 너의 기준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참된 모습을 파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사구계 중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색(色)은 ‘빛깔’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든 형상, 즉 모습은 빛이 있어야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색은 모습 또한 형상이라고 하지만 달리는 빛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색은 물질적인 존재로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변화해가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뚱이라든가 해와 달, 나무와 바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색신(色身)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육체를 뜻합니다. 비가 오려고 날씨가 끄물끄물하면 나이든 분들께서 “아이고, 삭신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의 삭신은 불교에서 말하는 색신 곧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대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할 때,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 그것은 눈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색(色)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습이나 음성으로는 부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을까요? 그 까닭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은 무상(無常)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고, 이 변하는 형상에 집착하게 되면 부처를 발견할 수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여래’라는 부처님의 참모습을 걸 모양이나 목소리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

른 길일까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하면 즉견 여래(卽見如來) 나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만일 모습이, 모습이 아닌 줄 알면 곧 여래를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를 다음과 같이 뜻으로 번역해 보면 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겉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 아닌 줄 알면 곧 진실한 부처님을 알게 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단지 부처님을 찾는 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여래요,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모습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겉모습이 참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참모습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가꾸면 진짜로 선남자 선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진짜 나 자신의 참모습인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진짜 멋쟁이 불자가 됩시다. 깊어가는 가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 불기 2560년 9월 초하루 법문 정리
(2016년 10월 1일)

못 믿을 세상

글 • 김기철(도예가)

요즘 와서 나는 부쩍 나다닌다는 것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길바닥을 나가지 한뫼 차치해서 정작 바쁜 사람들에게 휘방을 놓고 있는 폭이 그렇다. 따지고 보면 때때로 시골서 서울을 가고 서울서 시골을 오고 거기가 서울 바닥을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 우왕좌왕 남의 멧 배로 실수를 하며 헤매니 그만큼 교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물방개만한 내 차라도 몰고 다닌다면 여기저기서 눈을 부라리며 욕을 퍼붓는 동료 운전자들에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빌겠거니와 이 허청한 몸뚱이 하나 시내버스나 전철을, 그리고 어지간하면 두 다리를 빌어 다니는 것을 감안한

다 하더라도 콩나물시루 같은 차 안에 하나 더 보태는 격이니 결코 예쁜 짓이라고 내세울 것은 못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다스리느라 동분서주하는 것도, 남의 나라에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예 간다 저 간다 하는 것도, 그렇다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등에 콩을 볶아카며 뛰는 것도, 아니면 어려운 이들을 돌봐주느라 다니는 것도, 또는 무얼 배우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지 않아도 혼잡한 교통을 한층 숨뉘이 터지게 해놓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나만큼 어디 나다니기를 덜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지 쓸데없

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외로운 친구의 병문안을 간다든지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세계적인 교향악단이나 발레를 구경 간다면 몰라도 갔다 와 봐야 입맛만 슝스슝한 결과가 남는 그런 출입을 하고 있는 때가 많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부인은 마치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곤잘 불평을 늘어놓는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를 끌고 나와 길을 메워놓고 교통지옥을 만드는지 신경질이 나 죽겠다고 푸념을 해댄다. 가만히 듣고 보면 이 부인이야말로 거리 귀신이 들렸는지 교통지옥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하다. 기껏 누구하고 만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신다고, 또 무슨 모임 무슨 파티에 참석한다고, 앞드리면 코 닿을 데도 꼭 차를 끌고 나가는데 미용실이다 헬스클럽이다 계모임, 동창회, 결혼식, 백화점 쇼핑 따위도 건너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법이 없다. 한편 그 부인도 입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런 출입이 삶의 활력소이고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별거냐고 반박을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거야말로 좀처럼 해결될 김새가 안 보이는 골칫거리 같다.

아무튼, 나는 외출을 하고 있는 동안이나 돌아오고 나면 마음이 착잡하고 죄를 짓는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다. 그것은 결코 교통지옥에 부채질을 해댄 죄책감 같은 것이 아니라 전혀 딴 데 있는 것이다. 엇그제만 해도 나는 전철 속에서 한동안을 갈피를 못 잡고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앉아 있는 전철 칸에는 갑자기 남녀 대학생인 듯싶은 건강한 젊은이들이 '불우이웃을 도움시다'라고 쓰인 커다란 종이 상자를 가슴에 안고 빠짐없이 자선의 손길을 내밀도록 면전마다 멈춰 섰다 발길을 옮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나 같은 얼치기(뚝떨어진 서울내기도 못 되고 그렇다고 순진하지도 못한 촌뜨기)는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앉아 있어도 마치 중대결단의 순간이 시계 초침처럼

찰각찰각 임박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이 몇 초 동안 내 마음은 열두 번도 더 이럴까 저럴까 허둥대고, 드디어 그 사랑의 사자들은 인정사정도 없이 내 앞에 와 막아서선 '너 널태야? 안 널태야?' 하는 송곳 같은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내 다섯 손가락이 설령 돈지갑 속의 지폐를 부들부들 떨면서 잡아 빼려는 찰나라 할지라도 모금함은 그따위 마음에 없이 억지로 내놓으려는 돈은 가차 없이 끼워주질 말아야 정신을 차리지 하듯 서슬이 시퍼렇게 바람을 일으키며 지나치고 만다. 이렇게 되면 내 등에서 진땀이 나고 천하에 인간미도 동정심도 없는 못된 놈이 된 것 같아 고개 들기가 민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우유부단한 처신, 짹짜게 용단을 내려 움직이지 못한 손놀림이 그렇게 후회스럽고 창피할 수가 없다.

어찌해서 나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나 자신이 못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누구나

전철을 타거나 지하도 같은 데를 드나들 때 밧닥뜨리게 되는 일이겠지 만 찬송가를 부르며 애걸하는 이, 말 못하는 병어리가 쪽지와 껌 같은 것을 돌려놓고 동정을 구하는 경우, 거기다 가사를 걸친 스님 佛心이란 큰 글씨를 복전함에 붙여놓고 목탁을 두드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영영 풀리지 않을 난제를 앞에 놓고 앉아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한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서 눈에 들어오는 현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뼈딱한 시선으로 의심을 품고 있어야 하는지……. 저 앞 못 보는 맹인이나 팔다리가 잘린 불구의 몸 뒤에는 그들의 불운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 들이는 검은 손이 있다는 보도나 이 나라 성직자들 중에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팔아 사기행각을 하는 예가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지만 대체 오늘날의 이런 현상은 언제 적부터 싹이 터서 이토록 추악하게 뒤틀리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옛날의 결인은 순수했다.

따라서 주는 이들도 순수했다. 예전의 탁발 스님은 중생을 구원하는 자비의 화신으로 문전 문전을 찾아주었던 것이다. 어찌자고 동정을 비는 이들과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 사이에 그토록 불신의 골이 깊게 파여 그렇게 곱고 착하던 우리의 심성을 삭막하게 구겨냈는지 어디다 대고 원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겐 사십 년이 가까워오는 학생 때의 체험이 엇그제 일처럼 내 머리 한구석에 파고 앉아 뼈끔히 내다보고 있다. 당시 나는 광화문의 책방을 들렀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는 어느새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는 거리엔 썰렁한 초겨울 바람을 등으로 밀며 귀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차가운 가로등 불빛에 한층 가난하게 느껴졌다. 부자도 있지만 배고픈 시민이 많던 서울, 버스비를 아끼려고 어지간하면 두 다리 신세를 지는 그 시절이었다.

“학생 내 사정 좀 들어보우. 시골서 딸네 집을 찾아왔다 찾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노비가 없다우. 이 늙은이 차비 몇 푼 보태주우.”

협수룩한 시골 할머니의 목화숨 같은 목소리는 나의 장작개비 같은 마음이라도 흐물흐물하게 녹일 만했다. 나는 당장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그렇게 인도주의인지 사랑의 샘물인지가 고여 있다가 용솟음쳐 나오는지 꺼낼 수만 있으면 간이라도 빼내 쥐어주고 싶었다. 당시처럼 없게 원수라는 평소의 어머니 말씀이 그토록 실감 나게 나를 휘어잡은 일도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있는 돈을 죄 털어 건네주면서 조심해서 잘 가시라고 고향 할머니 작별하듯 정중히 인사를 하고 웬지 멋쩍어 이만큼 뚝 떨어져 버스를 기다렸던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기분이 흐뭇하고 날아갈 듯한 발길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니! 전 재산이라고 털어낸 몇 푼 안 되는 적선이 나를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환성이라도 지르며 뛰어들고 싶을 지경으로 흥분을 하고 있었으니 세상 태어나고 처음 느

껴보는 경험이었다. 그 당시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를 무릅쓰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대목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사이 내 콧구멍에서는 흥얼흥얼하는 콧노래가 자꾸 흘러나왔고 덩달아 입까지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번쩍번쩍하는 천국의 열쇠를 남몰래 마련해 놓고 돌아가는 것 같아 더없이 고맙고 고마웠다. 이것은 참으로 나에게서 크나큰 사건이며 일급, 아닌 특급 귀한 보물을 싸고 또 싸듯 가슴속 깊이깊이 묻어두고 너무나 기분 좋고 안락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기가 막힌 사건이 있고 난 뒤 몇 주일이 지났는지 몇 달이 흘렀는지 놀랍게도 그 목화숨 같은 음성의 할머니를 종로 바닥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나같이 어벙벙해 보이는 청년을 붙들고 연신 체머리를 흔들어가며 추억대고 있었다. 아빨새! 내가 그토록 고이고이 품

고 있던 천국의 열쇠가 이 할머니를 다시 보는 순간 하늘이 두 쪽이 나뉘어지지없이 박살이 날줄이야!

에라, 모르겠다. 천국의 열쇠고 지옥의 문이고 간에 거기 집착했던 나의 웅색한 소견이 부끄러울 뿐이다. 남들은 고아원을 찾는다 양로원을 방문한다 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는가 하면 평생을 먹지도 입지도 않고 푼푼이 모은 재산을 좋은 일에 척척 내놓는데 어찌다 한 번씩 코앞에 다가온 불행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표한다는 것이 뭐가 그리 장하다고 떠들어 붙이겠는가? 두말 말고 그들 뒤에 검은 손이 있던 붉은 악마가 있던 눈 꼭 감고 주재! 나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진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순수하게 주고받던 그 옛날의 훈훈한 인정을 되찾을 길 없고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계산만 앞서는 것 같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시절 보리 찬밥 한 덩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 믿고 지내던 그때가 그리워지는 지금이다.

상호존중과 배려의 삶 - ②

글 • 정두근 (사)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

3.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의 필요성

저는 이 운동을 시작할 때 국가와 사회에 비뚤어진 정신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운동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혹자는 왜 편히 살아도 되는데 사서 그 고생하느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공감하고 동참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 저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에 상호 존중과 배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격월로 상존배 포럼을 개최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를 주관하는가 하면, 상존배 잡지를 발행하고, 전국을 다니며 강연과 캠페인을 한 결과 낯선 단어였던 존중과 배려가 근래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으니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힘'이라는 주제로 제6회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세계 여러 나라 전·현직 수반들을 포함해 경제인과 언론인 등 104명의 리더들은 다섯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 ▷ 화해 - 갈등은 비극을 되풀이한다.
- ▷ 나눔 - 양극화를 줄여야 공존할 수 있다.
- ▷ 통합 - 아시아는 공동운명체이다.
- ▷ DT - 데이터 기술시대를 준비하자.
- ▷ 도전 - 창의성이야말로 생존 조건이다.

이 중 화해와 나눔, 통합 세 가지가 바로 상호존중과 배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상존배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나는 나눌 재산도, 재능도, 힘도 없다'며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재칠시(無財七施)입니다.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화안시(和顏施),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남을 대하는 언시(言施), 호의와 사랑을 담은 눈으로 베푸는 안시(眼施), 마음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베푸는 심시(心施), 몸으로 베푸는 신시(身施), 자리를 내어 양보해주는 좌시(座施),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찰시(察施), 이 일곱 가지는 하나같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베풀 수 있는 보시입니다.

이미 2천 5백 년 전에 공자도 존중과 배려를 말했습니다.

“문을 나서면 보는 사람마다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사람을 부릴 적에는 큰 제사를 받듯듯이 조심스럽게 하며,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勿施於人 출문여견대빈 사민여승대제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 말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실천 강령이기도 합니다. 맹자 역시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임금이 신하 보기(君之視臣 君지시신)를 손발과 같이 여기면(如手足 如手足 여수족) 신하는 임금 대하기(則臣視君 則臣視君 칙신시군)를 배와 가슴과 같이(如腹心 如腹心 여복심) 할 것이며, 임금이 신하 보기를 개와 말(如犬馬 如犬馬 여견마)과 같이 여기면 신하는 임금 대하기를 길가는 보통사람(如國人 如國人 여국인) 정도로 볼 것이며, 임금이 신하 보기를 흙 위의 지푸라기(如土芥 如土芥 여토개)와 같이 여기면 신하는 임금 대하기

를 원수(如寇讐 여구수)와 같이 할 것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먼저 존중과 배려를 베풀 듯이 존중과 배려는 강물처럼 위에서 먼저 아래로 베푸는 것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기득권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심장이듯 사람 사는 세상의 근본은 상호존중과 배려이어야 합니다. 상호존중과 배려만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다툼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중심에 상호존중과 배려가 있음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국민 정신문화가 하루속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 수준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상존배 운동의 비전

우선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가정에서부터 가족 상호 간의 소통을 내면화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이를 행

동화하여 상생(相生)하고 더불어 상승(相勝)하는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을 국민 정신문화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존배 운동본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와 지회를 설립해 전국화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존배 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지부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안정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인 갑을관계를 상호존중과 배려의 생산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을 할 것입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의식개혁운동도 병행할 것입니다. 특히 부정부패의 카르텔을 견고히 하는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촉구하며 감시할 것입니다. 나아가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남

갈등 극복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상대를 좌우로 예단하여 반대부터 하고 상처 입히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 사안에 따른 정책으로 논쟁하는 합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의견이 다른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야말로 합리적 사고의 출발이라는 원칙과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구체적 실천운동으로서의 상존배 운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지친 비약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란 밖에서 개인의 내부로 억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소우주인 내 안부터 스스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채운 다음 이를 타자와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사회로 국가로 인류공동체의 가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회복하고 지극한 성심으로 이를 생활화하여 협력과 평화, 상생의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존배 운동본부는 작게는 가정과 학교와 조직, 크게는 국가와 인류 공동체가 평화와 상생의 성심을 일깨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상존배 운동은 개인의 인격 도야로 가정의 행복과 사회에서의 성공을 실현하고, 학교와 회사, 군대 등에서 즐겁게 조직 목표 달성함으로써 상생과 상승의 문화를 실현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 사람이 있을 땐 존중을, 그 사람이 없을 땐 칭찬을, 그 사람이 힘들 땐 배려가 생활화·습관화·문화화하는 세상을 간절한 합장 배례로 기원합니다.

- 2016년 9월 25일 일요특강 정리

낡은 청첩장

글 • 윤언덕(작가)

원래 흰색이었던 속지가 누렇게 바랜 사진첩을 들추다가 사진 틈에 숨어있던 낡고 두꺼운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1971년에 만들어진 청첩장으로 언젠가 뭔가 쓰임새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보관해 온 것이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왔는데 발견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러니까 이 청첩장을 40년 이상 간직해오고 있었던 셈이다.

내가 이 청첩장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연유는 간단하다. 청첩장의 주인공은 큰아버님의 맏딸인 사촌 큰 누님과 매형인데, 누님이 결혼 후 잉태하자마자 매형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조카에게 추후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다. 아니면 기억조차 못 하는 '아빠에 대한 추억의 증표'가 되든지 말이다.

누님의 결혼은 요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정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신혼살림이 시작되었다. 비상식이 상식으로 넘어갈 즈음이었을까? 매형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고 누님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서 재가하지 않고 딸 하나를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왔다.

낡은 청첩장을 조심스럽게 스캐너로 복사하여 JPG 파일로 만든 후, 대학 후배이자 직장 후배에게 보냈다. 후배는 사촌 누님 딸의 남편인데, 조키와 후배는 내가 소개해서 결혼한 사이이다. 행여 후배 본가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해줄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엄하게만 느낄 수 있는 장모에 대한 정을 더 키울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1970년대였으니 20대 중반이면 당연히 혼기였고 백부님은 큰딸 혼처를 아는 사람을 통해 정했다. 그런데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누님이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누님은 부모가 정한 혼처와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고 그 상태에서 결혼식은 진행되었다. 아무리 부모가 정한 혼처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와 반한 결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한 누님은 깨어있는 생각을 한 사람이었음 틀림없다. 백부님 내외는 당연히 따라주어야 할 딸이 명을 어기는 데 대해 놀랐지만, 일단 결혼식을 거행한 후에는 어찌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상심한 누님은 마음에 없는 사람과의 결혼 대신 신혼여행 때 틈을 봐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하겠다는 생각을 동네 친구에게 밝혔고, 그 계획은 이내 백부님 내외의 귀에도 전해졌다. 백부님은 행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둘째 누님을 신혼여행에 팔려 보내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하였다.

매형은 인근 동네의 부농의 둘째 아들이었다. 훗날 키에 누가 봐도 잘 생긴 얼굴의 호남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신문물(新文物)에 눈 뜬 누님의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정황을 따져보면 누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올바른 결혼의 필수 조건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했다.

어쨌든 신혼여행 후 누님은 시댁으로 가야 했고 몇 달 후 임신 소식이 전해왔다. 그즈음에 누님 부부가 삼촌 댁인 우리 집에 인사 왔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막내처남인 나를 비롯한 세 살 터울의 두 형에게도 격의 없는 유머와 다정스러움을 보여줘 지금껏 좋은 분으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매형의 죽

음이 전해져 왔고, 누님은 갓 난 딸을 안고 친정으로 돌아와 고단한 청상과부 생활을 시작했다. 불심이 깊은 누님은 불가에 귀의할 생각을 하곤 했는데 집안 식구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끊임없이 불경 공부를 하는 누님의 모습은 지금도 변함없다. 누님이 재가(再嫁)하지 않자 시댁에서는 이를 가혹히 여겨 가산 일부를 증여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후 누님의 인생 목표는 유복녀인 조카딸을 잘 키우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누님은 친정과 인근 대도시인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가며 뒷바라지를 한 결과 조카는 교육공무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생겼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트라우마 탓이었을까? 조카는 혼기를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절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누님은 내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동생, 너희 회사에 어디 좋은 총각 없니?”

그래서 나는 조카의 결혼 상대를 구해야만 했는데, 남녀관계가 항상 그렇듯이 쉽게 되지는 않았다. 처음으로 조카에게 소개한 부하 직원과의 교제는 둘 다 호감을 느끼고 잘 진행되는 듯했으나, 서로가 좋은 감정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바람에 헤어지고 말았다. 두 번째로 소개한 ‘후배’와의 경우도 그랬다.

그렇게 해서 5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조카는 30대 중반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날,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카는 이종사촌 여동생과 대화 중에 어느 남자와도 결혼할 생각이 없지만, 외삼촌인 내가 두 번째 소개해서 만난 후 헤어졌던 ‘그 오빠’ 정도의 남자라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곧장 누님의 귀에 전해졌다.

“동생, 있잖아, 그러니까……. 벌써 5년이 지났네. 그 총각 결혼했니?”

“내가 아는 바로는 개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지요.”

“그러면 내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후배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볼 것을 권했는데 그는 조카가 결혼했는지를 매우 궁금해했다.

한 달 후에 누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조카와 후배의 결혼 날짜를 정했다는 것이다. 결혼 며칠 전, 결혼 주선자로서 누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누님은 예비사위에게 자신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며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조카가 편모슬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행여 사돈댁에서 미혼모 소생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그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내가 보관하고 있었던 청첩장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었으나 그때는 사진을 찾을 수 없었다. 이번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다.

조카와 후배는 귀여운 딸을 두 명이나 낳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언젠가 조카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내 집에 왕립한 적이 있다. 눈이 퉁방울만 하게 커서 예쁘기 짝이 없는 아이는 반갑게 맞이하는 내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를 외치고 있었다.

이제 막 오십 줄에 접어들었는데 내가 할아버지라나……. 큰아버지의 큰딸인 누님과 내 나이 차이가 14살 나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인데 ‘할아버지’라는 말에 그날 내가 당황했음이 틀림없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연과 우연이 만든 인연. 그러나 이유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가을이 되니 서정주 시인의 ‘국화 앞에서’라는 시가 자주 생각난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도시가스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12월 결연 대상자 - 정명숙(가명)님

빨리 찾아온 겨울이 서러워라.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공사죠? 가스 좀 끊어주시겠어요?” 11월 이른 추위로 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도시가스를 끊을 수 밖에 없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왜 다가오는 추위에도 도시가스를 끊어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명숙(가명) 어르신입니다.

2016년 8월까지도 어르신은 수급비와 장애 연금으로 부족하지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9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을 잃게 되었고 2016년 3~8월간 받은 수급비를 환급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르신은 난소암 치료를 받았고, 골다공증, 위염,

방광염으로 상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수급권을 잃게 되면서 약을 구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장 지출해야 하는 월세와 생계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르신은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추워지는 날씨에도 도시가스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어르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9세에 결혼을 한 어르신은 결혼 이후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고 생계를 직접 부담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남편의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6살 때 다리가 폭발해서 오른쪽 시력을 잃었던 어르신은 자신이 장애인이기엔 남편과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폭력 속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일방적인 구타 후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옆에서 칼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무서워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이혼을 했지만, 장애인으로 생계가 어려워 자식들을 보살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버렸다는 사실에 어르신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러나면서 수급비를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에게 계속해서 연락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살길이 막막해진 어르신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고차 명의가 바뀌어 다시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동안 어르신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권을 받기 위해 재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을 받는다고 해도 6개월의 수급비가 환수될 예정이어서 향후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르신은 월세 10만 원을 포함하여 의식주에 필요한 생계비 30만 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1년간 3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모금하여 어르신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던 2016년 3월 작은아들로부터 연락이 닿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준 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작은아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머니에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어르신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아들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였던 작은 아들은 어르신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했고 이러한 내용이 드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길상사 경내,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느.바.부+5가지 방법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공감대화를 해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상.느.바.부. (상황 느낌 바람 부탁)’을 머릿속에 떠올린 후 이야기를 나누어보십시오. 깜짝 놀랄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도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깊어집니다. 저는 자주 만나는 친구와는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공감대화로 속 깊은 교감을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을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대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에게는 자력(自力)이 생깁니다. 자력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고, 무엇이랄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력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벽이 되고, 집

이 되듯이 차곡차곡 만들어집니다. 공감대화는 자력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느.바.부.’와 함께 아래의 5가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상황을 설명하고, 느낌과 바람을 말한 후 부탁하는, 상세한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불어 5가지 방법을 기억하여 활용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1. 앵무새 되어 질문하기 :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질문형으로 말하기
2. 상대의 느낌 말해주기
3. 내 느낌 말하기
4. 내 바람 말하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기
5. 웃음으로 마무리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 후 매번 화장대 위에 옷을 벗어 놓는 경우 아내가,

‘당신은 매번 옷을 여기다 벗어놓아요?’ 라고 했을 때,

남편의 말을 위의 5가지로 적어보면, ‘내가 매번 옷을 여기다 벗어놓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났어요?’라고 하고, ‘미안해요.’라고 한 다음 ‘난 여기 벗어놓는 것이 편해서... 일단 여기에 벗어놓고, 좀 쉬다가 치우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우로 위의 5가지를 적어보면, 화장대 위에 벗어 놓은 옷을 보면서 대화를 시작하므로 앵무새 되어 질문하기는 없습니다. 상대의 느낌 말해주기는 ‘당신은 여기 옷 벗어놓으면서 좀 찢리지요?’ 라고 하고, ‘난 여기에 옷을 벗어놓은 것을 보면 짜증 나요.’ 라고 한 후 ‘옷은 벗자마자 걸어두기를 바라거든요.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웃음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내의 경우 얼굴이 굳어지며 ‘조금 후에 걸겠다고 말했으니까 두고 볼게요.’라고 하지 마시고, 웃음을 머금고 말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불편한 대화를 하였던더라도, ‘다음에는 편안하게 웃는 상황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하며 마무리하는 시기를 권합니다.

아시다시피 옷을 바로 걸든, 조금 후에 걸든, 다음 날 그냥 입고 가든 어느 것도 잘못되었거나, 잘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부부의 마음이 편해지면 됩니다. 편해지려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남편이 좀 쉬다가 옷을 치우면서 ‘내가 말한 대로 좀 쉬다가 걸었어요. 당신 기분 좋지요?’ 라고 하며 웃으면 되고, 아내는 ‘오~ 말한 대로 거는 것을 보니 좋아요. 역시 내 남편이예요.’ 라고 하며 웃으면 되고, 좀 있다기도 안 치워진 옷을 아내가 치우면서 ‘오늘은 내가 걸을게요. 고맙

지요?라고 하면 웃으면 되고, 다음 날 남편은 옷을 화장대에 놓으면서 '좀 쉬다 걸을 거니까 짜증 내지 않을 거지요?' 라고 말하며 서로 웃으면 되고, 어느 날은 남편이 벗자마자 걸으면서 '오늘은 바로 걸었어요. 당신 기분 좋지요?'라고 하면 웃으면 됩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서 특혜를 준다는 제안을 해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만해 한용운 스님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쉽고 어려운가, 성공하고 실

패할 것인가를 살피지 말고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아무리 성공하는 일이라도 그 일이 옳지 못하면 결국 파국에 이르는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정상적이지 않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일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일로 국민들 모두 불편한 시절입니다. 이 불편이 모두 우리의 책임임을 생각하고, 변화를 위하여 나는, 나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2017년 달력 발송 안내

11월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회원님에 한해 2017년 달력을 12월 중순경 개별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달력이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오니, 후원 회원께서는 이때쯤 우편함을 꼭 체크해주셔서 소중하게 제작된 달력이 분실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후원은 하면서 소식지는 받지 않는 분의 경우 데이터 정리하면서 달력 우송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달력은 광주모임 고현 본부장님의 '불일암 추억' 작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꿈같은 한 달

글 • 김광석(나고야대학 교수)

“형님, 마지막으로 아버지 목소리라도 들으세요.” 밤늦은 시간 귀국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는 전무한 상황에서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는 나에게 너무도 가혹한 선고였다. 목포병원에서 광주병원으로, 광주에서 서울병원으로, 일본에 있는 우리 가족을 제외한 모든 형제는 아버지가 타신 앰블런스 뒤를 따라 모두가 함께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 못하면서도 아버지를 살려내기 위해 목숨 걸고 핸들을 잡아야만 했던 내 동생의 심정은 어땠을까.

때만 해도 그렇게 위급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서 상황은 급변하여 주어진 시간은 겨우 몇 시간밖에 없었다. 오늘 밤을 못 넘긴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늘 큰아들 노릇까지 듬직하게 잘 해내던 동생도 당황한 채 떨리는 목소리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동생이 전화기를 아버지의 입언저리에 대고 한마디라도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못한 나에게 들려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히 전해진다. “아버지 일본 형님입니다.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가까스로 들린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말어, 나 괜찮해야~”라며 멀리 있는 큰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써 태연하게 말씀하시지만, 수화기

를 통해 들려오는 힘없고 가느다란 목소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육성이라는 것을 짐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 얘기 못 하고 “아버지 안 돼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버지 안돼, 아버지 힘내세요. 내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예? 안돼요.”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또 외쳤다.

오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다.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 편할 것 같았다. 아버지 혼자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내가 동행해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어려서 집을 나온 나는 고향 땅에서 내 부모 모시고 욕심 없이 오손도손 살고 싶었다. 오직 그날만을 꿈꾸며 타향에서 타국에서 한평생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고 무정하게 떠나시다니……. 첫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모든 것을 부처님께 다 맡겨둔 채 전화 연락도 하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것도 하늘의 뜻이

며 자식으로서의 복이라라. 나같이 부모에게 불효한 자가 어찌 감히 그러한 것을 소원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뿌린 만큼 거두리라며 चे념한 채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안내에 문의했다. 특실 〇〇〇호실이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는 매트 위에 앉아 계셨고 형제들은 주위에 모여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생사를 넘나드는 부자간의 인연을 재차 확인하고 부동켜안고 윈 없이 울고 또 울었다. 아버지도 함께 우셨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다. 나에게 이렇게 아버지를 돌려주신 부처님께 합장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드렸다. 그리고 절대로 아버지의 건강을 되돌리기 전에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니 다시는 내 아버지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었다. 아버지가 그렇게도 가시고자 하시던 우리 집으로 내 고향 땅으로 함

께 내려가기 전에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나는 비록 내가 그리고 그리던 고향 땅은 아니었지만 병실 안에서나마 함께 할 수 있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5시 반이 되면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병실에 들러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다녀오겠다는 인사드리고 출근하는 장한 내 동생, 바쁘게 집안일을 해 놓고 9시면 병실로 출근하는 제수씨, 아버지의 입맛에 딱 맞게 노릇노릇하게 생선을 구워서 들고 오는 막내, 평소 병원에서 배운 솜씨로 아버지를 불편 없이 척척 간병하는 광주 누님, 늘 걱정이 많아서 일이 끝나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갖다 나르는 정 많은 큰 누님, 주말이면 수원에서 올라와 큰 누님과 밤새워 간호하는 퍼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넉넉한 오례,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던 장한 내 아들 재훈이 그리고 평생을 함께해 오신 어머님이 매일 아버지와 함께했다.

나는 야간 당번이라서 제수씨와 교대를 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 10시 정도, 아버지는 밤새 거의 잠을 주무시지 못했고, 등을 두들켜 드리면 조금은 편해 하셨다. 밤새 꼬박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늘 꿈꾸며 살아온 아버지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그것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버지의 수족이 된다는 것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었을까. 남은 시간을 아버지와 단둘이서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고 욕심을 부려보기도 했다. 아버지가 주무시면 매트 곁에 앉아 아버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쳐다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이었다. 이러는 나를 본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듯이 “좀 자거라. 오늘 저녁은 편히 잘 것 같으니 너도 눈 좀 붙여라.”라고 불침번을 서는 다 큰 아들 걱정을 하신다. “아뇨, 아버지 괜찮아요. 이렇게 아버지를 가깝게 본 적이 없

있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 실컷 봐놔야죠. 아버지 나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라고 말을 해도 듣는 등 마는 등 하신다. 이렇게 해서 날을 거듭할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호전되고 곧 퇴원할 것 같아서 설 명절은 집에서 설 것 같다고 기대에 부풀기도 했다.

또 이러한 일도 있었다. 내가 어릴 적에, 일 철이 지난 겨울이면 동네 분들은 모여 추름(화투나 윗놀이를 하여 지는 쪽이 돈을 내서 같이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노는 것)을 하곤 했다. 그때 아버지가 갖다 주신 카스텔라 빵 맛이 그렇게도 맛있었다. 어느 날 오후에 병원 앞 길목 빵집에 그때 그 카스텔라 빵이 보였다. 들어가 맛을 보니 영락없는 그때 아버지가 호주머니에서 꺼내 주신 그 카스텔라 맛이 아닌가? 신이 난 나는 아버지처럼 하나만 사서 호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향했다. 그때 그 심정은 마치 심심산골에서 아버지 병환을 위해 산삼을 찾으러 나갔다가 산삼을 발견한 동화 속 효자와도 같았다. 의기양양 신이 나서

병실에 들어가 저녁 늦은 시간에 배가 출출할 때 살짝 꺼내 드렸더니 역시 아버지도 나와 같이 그때 카스텔라를 기억하셨고 부드럽다고 맛있게 잘 드셨다. 이렇게 작은 카스텔라 한 조각으로 아버지와의 옛 추억을 되살려준 시간이 너무도 감사할 뿐이다.

하루하루가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신나는 나날이었다. 병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간호사,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병원에 있는 모든 분이 그렇게도 감사할 수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좋을까?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아버지만을 위한 분들인 것 같이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것이다.”라고 환한 웃음을 머금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감히 분수에 넘친 행복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 두렵기까지 했다.

그 후 아버지의 건강은 혼자서 걸

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어서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설 명절을 지내고 초사흘 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학회문제로 출국했다 오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어쩔 수 있나, 갔다 와야지.”라며 씩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으셨다. 긴 시간 아들을 곁에 잡아두고 있는 것이 일에 방해라도 될까 봐 못내 쓸쓸히 허락하신 것 같았다.

그런데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아버지 상태가 급변했고, 설날 아침엔 차를 지내러 다녀오겠다던 동생과 나를 당신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셨다. 정월 초이튿날 오전에 아버지는 팔 남매와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82세로 편안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훌쩍 떠나셨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간절히 일평생 꿈꾸며 살아온 소원을 위하여 아버지는 타국에서 달려온 큰아들을 위해 만신창이의 몸을 이끌고 꼬박 한 달간 함께 하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으며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와 나만의 48년 인연을 병실에서의 단 한 달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렇게 넘치지는 못하나 흡족하게 함께 해주시고 떠나셨다. 가시는 아버지께 나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조용히 편안한 마음으로 합장하며 보내드렸다. 아니 영원히 내 가슴 한켠에 묻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세)라고 항목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2017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인터넷)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본 모임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를 '이티(E.T)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미 타버린 사람'을 줄인 말이기도 하고, 정말 온몸이 주름져 있는 외계인처럼 생겨 붙은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훈훈한 외모에 똑똑하고 신념이 굳은 청년이었습니다. 길거리 또는 천막 교회 한쪽 귀퉁이에서 새우잠을 자며 공부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수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덴마크와 인도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의 날개는 하루아침에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불길에 휩싸여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으로 귀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었고, 손은 오리발처럼 붙어버렸고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눈 하나는 의안을 해야 했고, 남은 눈마저도 실명 위기였습니다.

형제를 분간할 수 없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그리고 피눈물을 쏟아 내셨습니다.
그는 눈물샘이 타버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진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청십자 의료조합 일을 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벗회', '사랑의 장기 기증본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했던 그는 경기도 가평에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워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과 벗할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채규철 선생님(1937~2006) 이야기입니다.

“삶에는 두 개의 F가 필요합니다. 'Forget(잊어버려라)'와 'Forgive(용서해라)'입니다. 만약 사고가 난 뒤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을 괴물처럼 보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교육자의 삶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불태운 그의 인생은 아직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 이달의 명언 >

소나기 30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나기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 채규철

* 출처 : 따뜻한 하루

자유로운 영혼이 되길 바라며...

글 • 박정숙

뒷산은 늘 푸른 잣나무 숲이 울울창창하고,
 앞산은 잎갈나무 빼곡한 낮은 동산이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가 적막함을 가시게 하는
 축령산 줄기 수동골에 오두막 짓고,
 버릴 것 버리고, 놓을 것 놓아버리고,
 자연에 가장 가깝게 살아보려고 삶의 터전을 옮겨 왔다.

특별할 것도 귀할 것도 없는
 용쓸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살아 보려고,
 시기 없이 다툼 없이
 나름의 자태로 피어나는 이름 모를 들꽃처럼 살아 보려고,
 꽃향기에 취하고, 새의 지저귐에 취해 살아 보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풍광에 감사하며 지내보려고.....

나지막한 오두막은 탁 트인 창문 하나로 내가 앉은 자리에
 그대로의 자연을 한눈에 다 감상할 수 있도록 들어온다.
 밤이면 별과 달이 찾아들고,
 한여름 초저녁은 반딧불이가 창문 밖 잔디밭에서 춤을 추고,
 곤충박이가 굴뚝으로 들어와 알을 까고 새끼를 키워 데리고 나가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이라면
 조금은 불편해도 정신세계는 더욱 맑아지고

삶의 무게나 시달림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비가 오면 빗소리가, 바람 불면 나무를 흔드는 바람 소리가,
 비가 내려 시냇물이 불어나면 물소리가 정겨운 그런 곳에서
 시냇물에 발 담그고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마음 그대로 살 수 있기를.....

시냇가 홀로 선 키 큰 참나무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즐거움, 괴로움, 슬픔 등을
 모두 알아주는 듯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서 있고,
 허명 허세의 잡동사니를 버리면
 이 작은 오두막은 당당한 내 보금자리로
 최상의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 오두막을 찾으시면 살림살이대로
 밥 한 그릇에 텃밭의 푸성귀로 대접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한다.

월간 '맑고향기롭게' 소식지 발송 안내

본모임은 월간 '맑고향기롭게'를 발간하여 연간 소정의 우편비를 후원하는 분에 한해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상사 신도등록, 기도, 인등 접수된 불자님은 길상사에서 별도로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에서는 소식지 발송 우편비와 제작비를 절약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반송되거나 오랜 기간 후원 내역이 없는 회원님의 경우 본모임 활동에 참여의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 후원내역이 없는 분의 경우 부득이 개별우송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혹시 익명으로 후원해주셨거나, 사정이 있어 후원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소나 후원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를 모집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모임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와 인연을 맺고 자신의 글을 연재할 작가와 문학에 소질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원, 신도, 독자 중에서 살면서 삶의 지혜가 되는 글, 책을 읽으며 발견한 가슴 뭉클한 감동, 깨달음을 준 문구나 본인의 생각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 드러나지 않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슴 찡하게 느꼈던 감동이나 속마음을 글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또는 몸소 느낀 자연의 소중함,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경험담도 좋고, 수행과 신행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내 마음 안의 깊은 느낌이나 하루하루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원고를 널리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모집 부문

- 작가의 인문학(여행, 음식, 민속, 역사, 교육, 사람, 책, 과학, 철학, 문화, 공연, 음악 등)
- 수필, 논설, 시, 시조, 독후감, 편지글
- 그림, 사진, 만화(만평, 풍자, 유머 등)
- 알찬 소식 등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

■ 모집 안내

- 작품 및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본모임 전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투고자의 의향에 따라 원고료를 유.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단순 투고일 경우는 무상 투고를 전제로 합니다.

■ 참고 사항

1.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분량을 맞추어 주세요.
(지면 최소 1면 ~ 최대 3, 4면/ 200자 원고지 최대 20매 이내)
2.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맞춤법, 띄어쓰기를 확인해주세요.
3. 문장의 길이를 조절하고 단락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긴 문장은 도중에 잘라서 독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해주세요.
4. 문장 부호에 유념하고, 가능하면 컴퓨터 용어와 한자는 삼가주세요.
5. 너무 짙은 종교색은 금하고, 종교 비판 및 폄하는 피해 주세요.
6. 지극히 교훈적이거나 상대를 폄박하는 내용은 피해 주세요.
7.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낼 곳

- 주 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성북동 323)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모임으로, 월간 맑고향기롭게를 1994년 5월 창간(2016년 12월 통권 262호)하여 회원과 길상사 신도를 비롯하여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 교도소, 동사무소 등에 지속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 되시면 본모임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를 주는 알차고 유익한 글이 담긴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2016년 중앙모임의 여러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욕심내지 않고, 나누고 양보하면서 우리 마음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2017년에도 정직하게 맑고 향기로운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 사업

① 월간 '맑고 향기롭게' 발행 :

- 2016년 12월 통권 262호 발행
- 월 평균 10,000부 발간
- 교도소, 군법당, 병원, 복지시설 배포
- 소식지 발송 정기 봉사팀 운영

② 연꽃 스티커 배포 :

- 맑고 향기롭게 전국 사무국, 길상사에서 배포, 행사, 모금, 홍보활동을 통하여 배포
- 한글판, 영문판제작 / 2016년 1만5,000부 배포

③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 특강)

- 3월 27일. 정해성 한국웃음임상치료센터장 <쫄쫄득득한 인간관계의 기술>
- 4월 24일. 김선우 시인, 작가 <원효와 요석처럼 살 수 있다면>
- 5월 29일. 고예준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기사 <한국의 문화 재발견>
- 6월 26일. 김병조 개그맨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무소유>

- 7월 24일. 이병준 상담심리박사 <행복이 가득한 집 '남편, 내 편 만들기'>
 - 7월 31일. 고예준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기사 <우리 문화유산속 첨단과학이야기>
 - 9월 25일. 정두근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 <상호존중과 배려의 삶>
 - 10월 23일. 고현희 공감대화 개발원장 <가족의 마음을 여는 공감대화법>
 - 10월 16일. 양현모 사진작가 <사진 잘 찍는 법>
 - 11월 27일. 이현용 서울중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유머가 밥이다>
- #### ④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시낭송 음악회
- 2016년 3월 6일. 법정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맑고 향기로운 시낭송 음악회' 진행 - 한국 시단을 대표하는 신경림 시인을 필두로 왕성한 시작 활동을 하고 있는 박형준, 김선우, 박준, 이혜미 등의 시인의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협연은 물론 왕성한 연주 공연을 갖고 있는 중견 피아니스트 유수정을 비롯 바리톤 이호중, 소프라노 전미숙, 첼로 이선민, 오보에 이정희, 대금 김영성, 가수 권진원 참여
- #### ⑤ 맑고 향기롭게 심플,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상품 시범 운영
-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브랜드 포교 활성화, 문화상품 시범 개발 및 유통리폼, 천연화

장품 사용 증대를 위해 길상사 안내실과 녹색 나눔장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사회에 재환원하는 사업 추진 중

⑥ 맑고 향기롭게 대의원총회

- 2월 26일. 2016년 정기 대의원 총회(31차) 개최하여, 임원(이사 9인, 감사 2인) 선출 및 2015년 사업결과&결산보고, 2016년 사업 계획&예산안과 안건 의결

세상 사업

①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사업

- 총 46명 장학생 선정/ 수업료, 학교운영회비 전액 지원
 - 4월 15일 장학증서 전달식 진행
-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사업 현황
- (1) 1994년~2005년 까지 총 249명의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2) 2006년 ~ 2016년 까지 350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1994년 ~ 2016년 장학금 : 총 599명 중, 고생 / 총지급액 : 약 8억 7천여만원

② 복지시설 정기 방문 자원활동

- 서울노인복지센터
- 매주 월요일,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점심무료 급식 지원 노력봉사(모회원 자원활동을 2016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 일요봉사로 전환함)
- 진인노인요양원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 오전: 청소년 및 주방 봉사, 오후: 어르신놀이 활동

• 월곡 청소년센터 위탁 운영 : 청소년 이용시설, 방과후 교실 운영 재정 및 물품후원

③ 나눔 행사 개최

- 서울노인복지센터
- 10월 17일. 맑고향기롭게와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 진행, 어르신 식사후 후식으로 백설기, 과즙음료, 직접 제작한 안경달이 기증
- 진인노인요양원
- 11월 13일. '어르신의 마음' 국악 공연, 웃음치료, 노력봉사활동

④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 매주 목, 금 독거노인, 결실아동,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구 지원
- 현재 500가구 및 단체 1곳 지원
- 분기별 농협상품권 가구당 3만 원권 지급
- 연 3회 명절(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부처님 오신 날 특별 후원
- 3월~11월 둘째 목요일 김치 전달

⑤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나눔

- 11월 24일. 겨울 김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큰 근심거리를 넉넉한 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약 4,000여 포기의 김장을 담아 1,000가구에 각 10kg씩,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나눠드렸습니다.

⑥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관등) 운동

- 법정스님께서 초창기 맑고 향기롭게 운동으로 펼쳐시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등 밝히기 운동을 되살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등 밝



히기운동 전개

⑦ 전화말벗 정기 활동

- 반찬 지원을 통해 결연을 맺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게 봉사자가 매주 1회 이상 전화하여 건강 및 안부를 묻고, 말벗을 해 드리는 활동

⑧ 대상자 사례관리 및 방문상담

- 반찬 나눔, 전화말벗 대상자 중 특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사무국에서 전화 및 방문 등으로 사례관리 진행

⑨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 진행

-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모금 캠페인 진행
- 4월~10월까지 길상사 경내 캠페인 활동

⑩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 캠페인

-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모금 캠페인 전개

⑪ 아름다운 마무리 '동전모금 캠페인' 전개

- 가정이나 회사 서랍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모아 빈곤층노인 지원 사업 전개

⑫ 청소년봉사자와 독거노인과의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으로 청소년과 독거노인이 결연을 맺어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가정방문, 청소, 말벗, 산책 등의 재가봉사활동 진행

⑬ 정기 봉사팀과 사무국 간담회 진행

- 반찬나눔, 전화말벗, 서울노인복지센터, 진인요양원, 의류리폼, 녹색나눔장터, 청소년 봉사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진행

⑭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봉사단체)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정기 후원
- 서울보호사회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자연 사업

① 숲기행 - 숲과 전통시장을 찾아서

- 4월~10월 첫째 토요일(총 8회)
- 10월 24일은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

② 천연화장품 강좌

- 천연화장품(로션, 에센스, 스킨) 및 천연 세제(삼푸,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는 강좌 / 짝수달 매주 수요일 진행

③ 의류 재활용 리폼 활동

- 헌 의류, 불량 및 자투리 원단, 한복 등을 기증받아 가방 및 잡화 만들기 활동
- 매주 화요일 진행 / 디자인, 재봉틀, 재단 등 재능기부 봉사자 활동 중 / 녹색나눔장터에서 판매

④ 녹색나눔장터

- 4월부터 10월까지 마지막 일요일 길상사 경내에서 개최 / 기증받은 헌 옷, 헌 책 등 판매
- 친환경 용품, 의류 재활용리폼 상품, 천연화장품 홍보 및 판매

▶ 연대 활동

① 부처님오신날과 함께하는 친환경 체험마당 및 녹색나눔장터 개최, 길상사 행사 지원

② 10월 8일. 사랑 나눔 연합 바자회 참여(먹거리 및 녹색장터)

▶ 법정스님 진영각 운영

- 법정스님의 진영각 관리 운영 및 맏고 향기롭게 간행물, 연꽃 스티커 배포, 장학금 모금

맏고 향기롭게 후원금 소득공제 안내

(사)맏고 향기롭게는 마음, 세상, 자연을 두루 맏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나가는 이들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100% 회원들의 재정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은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약속으로 정기, 부정기후원, 후원금액 결정, 후원방법 선택(CMS자동이체, 온라인, 지로) 까지 스스로 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정관)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인노인요양원 나눔 행사 진행

진인노인요양원 방문 봉사팀은 시설 어르신을 모시고 민요와 풍물공연을 진행하고, 겨울철 건

조한 날씨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바디로션, 림팩, 핸드크림, 삼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소 생활관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봉사자의 따스한 온정을 통하여 웃음과 기쁨을 드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였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서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 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 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1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 (1,2,8,9,15,16,22,23,29,30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5,12,19,26일)/매월 첫째 일요일(4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친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및 나눔행사 진행 : 둘째 일요일(11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7일)/오후 1시30분/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녀와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7일)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6,13,20,27일)/세계일화실
-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정기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녀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사)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청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숲가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감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3차 회향 / 12월 5일(월) 오후 2시
- 4회차 기도가 12월 6일(일) 입재되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2월 3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2월 10일(토) 오후 8시 00분 ~ 12월 11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길상사 창건 19주년 기념법회

- 일시 : 12월 11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입재 : 12월 16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동지기도

- 일시 : 12월 21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기도

- 일시 : 12월 22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2월 29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신정 합동 차례

새해, 2017년 1월 1일을 여는 신정 합동차례를 마련합니다. 부처님 전에서 향 사르며 조상님께 맑은 차로써 공양 올리는 것으로 새해를 여시기 바랍니다. 신정 합동 차례는 당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에서 마련됩니다. 동참하실 분은 종무실로 신청바랍니다.

1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천수다라니기도	12월 3일(토)	저녁 6시	극락전
금강경기도 3차 회향	12월 5일(월)	오후 2시	극락전
금강경기도 4차 입재	12월 6일(화)	오후 2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2월 10일(토)	저녁 8시	극락전
길상사 창건 19주년 기념법회	12월 11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2월 13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2월 16일(금)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동지	12월 21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12월 22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12월 29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사진·진각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지만
마음속으로는 남을 꾸짖는다.
그는 쉽없이 지껄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지만
침묵을 지킨다.
필요 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말과 침묵〉

길상사 창건 19주년 기념 법회

12월 11일(일)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이 도량에 몸담은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법답고 길상스런 도량을 이루게 하시고,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는 신도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 法 頂 -

새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하게 됩니다. 날로 각박해지고 메말라만 가는 세상을 향해 길상의 문을 활짝 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9년 이란 세월이 훌쩍 흘러갔으니 말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길상사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창건 19주년 기념 법회를 12월 11일(일) 극락전에서 마련하여, 여러 불자님과 함께 길상사의 창건일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길상사 신도님과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께서는 수희동참하시어 길상사의 내일을 밝게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으로 예쁜 2017년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